

#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2, 에스라 3-4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 강의하는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ta)입니다. 2회기, 에스라 3-4장입니다.

성경 에스라 3장을 펴십시오. 에스라서가 영적인 개혁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개혁도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개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는 그들이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제단을 쌓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은 일곱 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읍에 모였더니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귀환 후 일곱 번째 달이고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은 티쉬리월일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유대력과 우리 달력이 있어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티쉬리가 우리에게는 9월, 10월이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잔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새해인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가 있고, 나팔절, 속죄일, 욘 키푸르(Yom Kippur), 초막절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그들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에서 우리가 있는 티쉬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희생 제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사람으로 왔다고 말하며, 마음과 목적이 일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은 희생, 희생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을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여로보암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은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바로 밖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 하였느니라 다시 한 번 에스라와 느헤미야, 회복과 출애굽 사건 사이의 유사점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언급하고, 왜 모세를 언급합니까?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귀환자들은 예배를 이해하고, 제사를 통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쯤이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록 가설인 JADP를 믿는 학자들은 이 법칙이 기원전 4세기, 3세기, 2세기 후반에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언급하거나 신명기만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히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율법책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주 작은 세부사항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3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배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역시 문제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며,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는 주변 국가 출신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사마리아, 이집트. 그러나 제단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다시 출애굽기 29장, 민수기 28장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배 기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켰습니다. 4-6절, 신병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 사건과 매우 중요한 유사점입니다. 기록된 대로 날마다 규례대로 수효대로 매일 번제를 드렸느니라.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린다.

그리고 초승달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정해진 절기에. 그리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7일,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7년 동안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여기에 있었을 때 587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돌아와서 건축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키푸르의 속죄일과 함께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종교 축제 중 하나였습니다. 달력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티쉬리월 15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대는 9월, 10월입니다.

그것은 주로 출애굽 사건 동안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인 주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 기간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공급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도 관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대하에서 봅니다. 우리는 에스라에게서 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받은 유일한 절기이다. 레위기 23:40.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보게 될 기쁨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들은 희생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번제물 외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앨런 로스(Alan Ross)는 자원 헌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헌금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배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원 제물은 살아 있는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언제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축하하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죄를 속죄합니다.

매우 중요. 다시 이것은 레위기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용된 언어는 육체적인 불순함과 정결함, 영적인 불순함, 도덕적 불순함을 단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기간 동안 이 희생을 통해 용서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할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최고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석수와 목수들에게 은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두란 사람들에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더니 그들은 바사 왕 고레스의 우두머리의 허락을 받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옹바로 운반하여 왔느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솔로몬 시대의 원래 성전 건축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석공과 석재 절단기가 고용됩니다. 역대상 22장에는 목수들과 함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지불은 음식, 음료, 기름의 양만큼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2장 10. 마이어스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시돈과 두로는 페르시아 왕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음식은 특별한 건축 프로젝트에 항상 사용되며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즉. 키루스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내린 것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은 페르시아 왕의 하사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이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남은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자들과 함께 태초를 행하니라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여호와의 집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하나님의 전 기술자들을 감독하였고 헤나닷 자손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함께 감독하였더라.

그러므로 성전 재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둘째 달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6장과 역대하 3장. 이 프로젝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와 엘로힘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용되었으며 여기서는 신성한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의 집과 야훼의 집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와 같이 계시하시는 출애굽기와도 연결됩니다.

4월과 5월의 시기입니다. 그들은 왜 짓나요? 왜 이번 달에 건축을 시작합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이때가 건축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때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 11절.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과 아삽 자손은 상징물을 가지고 나아와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명령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합창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육체적인 회복을 볼 뿐만 아니라 회복의 영적인 차원도 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축하하는 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역대하 7장 6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느꼈던 기쁨과 유사합니다. 트럼펫이 사용됩니다.

숫양의 뿔은 왜 안되나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2절에서는 나팔소리가 집회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나팔은 역대하 13장에서 경고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서는 축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새로운 개념이었나? 아니, 아니. 헤세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의 친절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역대기 첫 번째 연대기, 두 번째 연대기에서 나타납니다. 시편에는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다시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번역되었고,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의 친절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12절과 13절.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는 모두 첫 집을 본 사람들이 많더라. 아, 이제 우리는 이 사원과 이전 사원의 비교를 봅니다.

첫째 집의 영광을 본 노인들이 있었고 이제 둘째 집도 보고 이 집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나 많은 사람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니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그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기뻐 외치는 소리와 백성이 통곡하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였느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까요? 학개 선지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학개 2-3장에서 하나님은 일련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집의 옛 영광을 본 사람 중에 누가 남았느냐? 지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집의 옛 영광을 본 사람은 너희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든 사람들은 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별로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단만으로는 재건된 성전이 원래의 성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돌들은 더 작았고 솔로몬 성전의 큰 돌들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노인들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지만 과거에 살면 안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3장의 교훈은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 예배하고,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고, 춤으로써 예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가 아닌 음악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첫 두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예? 아니, 아니. 4장에서는 그들이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은 반대의 근원, 반대의 지속성, 반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반대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반대의 근원이 있습니다.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사상을 소개합니다.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나아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경배하므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당신의 신도 당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앓수르 왕 에살하돈 시대부터 줄곧 그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데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 포로 기간 동안 그 땅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끌려온 외국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건설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글쎄, 그들은 당신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숭배하기 때문에 재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나라들의 일을 따라 자기 신들도 섬겼다고 말합니다(왕하 17:33).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여호와만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력이 있느니라 3절.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매우 배타적입니다. 글쎄요, 그건 사실이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려

한다는 이해와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1장에서 키루스의 칙령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낙심하게 하고(4절), 건축하기를 두려워하게 하며 모사들을 매수하여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 계획을 좌절하게 하였느니라. 야당이 사용하는 무기를 주목해주세요.

우선 낙담과 낙담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마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동안 성공했고 때때로 우리도 같은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우리는 낙담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마비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단순한 낙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부패함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반대파는 자신들의 계획을 수행할 부패한 조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방식과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대가 반드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합니다. 때때로 반대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가 있고 끈질긴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반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오고 반대의 다양한 얼굴을 본다는 것을 봅니다. 6절,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여기 4장에는 8절부터 아람어로 된 글이 나옵니다. 왜 아람어로 전환합니까? 아람어는 당시의 공용어였습니다. 그것은 상업과 비즈니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와 같은 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아람어로 작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왕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을 왕께 아옵소서. 그들은 반역적이고 사악한 도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와. 성전 때문에 그 도시를 종교의 중심지로 보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반대자들은 반역적이고 사악하다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을 마무리하고 기초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 알리소서 성을 중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면 그들이 다시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것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며, 왕실 수입은 손상될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왕께 아뢰나이다 만일 그 성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면 강 건너편 지방에서 왕이 아무 지위도 얻지 못하시리라 하노라 누군가가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썄요, 진실을 거부하면 그것을 거짓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진실을 거짓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에게 보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야당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급 시민이 아니라 앗수르 침략 당시 유다로 끌려간 외국인들로서 서기관, 지휘관, 재판관, 총독, 관리들입니다. 야마우치는 자신의 저서 페르시아와 성서에서 납부할 수 있었던 세금이 현재 가치로 2천만에서 3,500만 달러 사이로 추산된다고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 매년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무엇을 합니까? 왕은 연구를 합니다. 그는 17절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왕은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와 강 건너편 다른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Beyond the river*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히 읽혔습니다.

내가 조서를 내려 살펴보니 이 성은 예로부터 왕들을 대적하며 그 가운데서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강력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강 건너편 온 지방을 다스리며 조공과 통행세를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을 그치게 하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말게 하라.

왜 피해가 커져 왕에게 상처를 입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의 연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의 연구에서 열왕기하 18장에서 앗수르에 대항한 히스기야의 반란에 대해 발견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열왕기하 24장에서 여호야김과 히스기야가 둘 다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고, 둘 다 그 반역의 결과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야당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왕들은 앗수르 왕 에살하돈입니다. 다시 그들은 앗수르의 이전 통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는 사람은 사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입니다.

따라서 Artaxerxes I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반대 세력이 작동하고 작업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그래서 연대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닥사스다 시대에서 다리우스 시대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Artaxerxes)가 기원전 465년에서 424년 사이에 다시 살았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연대기적 변칙입니다.

다리우스는 성전이 실제로 완공된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5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엄격한 연대순을 따르지 않지만 역사에 공백이 있는 연대기적 예외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야기를 순서 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왕이 재건 작업을 지원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실제로 다리우스 치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큰 힘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명확한 연대순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요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반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서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반대에는 거짓말, 압력, 박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며,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반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고 때로는 반대가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 강의하는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ta)입니다. 2회기, 에스라 3-4장입니다.